

# 머리말

## 어떤 책인가

이 책은 대중음악의 리듬을 배우고자 하는 미디 음악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으며 크게 다음과 같은 4가지 주요내용을 다루고 있다.

1. 대중음악 장르들에 대한 이해
2. 배치와 음색과 강세의 변화라는 리듬구성의 3가지 기본원리
3. 드럼과 베이스기타와 여러 타악기들의 특성
4. 락, 팝, 힙합, R&B, 라틴팝, 테크노, 퓨전재즈, 애시드재즈 등의 주요 장르별 리듬의 청음과 분석

첫번째로 기성 장르들을 이해하는 것은 새로운 리듬의 창작에 도움이 얻기 위해서이다. 앞서서 얘기했지만 그 어떤 장르도 홀로 탄생된 것은 없고 그것은 외계인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장르를 공부하는 또 다른 이유는 현재의 주류 장르나 음악적 경향은 언젠가는 힘을 잃고 새로운 것으로 재탄생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현재 선호하는 장르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도 항상 마음의 문을 열어두기 바란다.

두번째로 리듬의 창작에는 화성과 마찬가지로 분명 원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필자는 많은 음악들을 분석하면서 공통의 규칙들을 정리해 보았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배치), 어떤 악기를 사용할 것인가(음색), 어느 위치에 강세를 줄 것인가(강세)의 3가지 원리였는데 이를 통해서라면 새로운 리듬에 대해서도 이해와 창작이 수월해지리라 믿는다.

세번째로 대중음악의 주류리듬 악기인 드럼과 그외의 봉고, 콩가, 마라카스 등의 퍼커션들의 특징과 연주법들을 정리하였다.

네번째로 기성곡들의 특징있는 리듬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듣고 따라해 볼 수 있도록 부록 파일(mp3)들을 준비하였다. 실제의 곡 속에서 타악기들이 다른 악기들과 함께 어떻게 진행되며 곡 분위기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했다.

노력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분에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한 성과는 이미 필자의 교육경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다.

## 리듬의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작곡을 공부하고자 할 때 보통 악기 연주와 화성학, 시창/청음을 중점적으로 공부한다. 그러나 이는 화성을 중요시하는 서양클래식 음악의 영향 때문이다. 음악은 선율, 화성, 리듬이라는 3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은 모두 동등한 미(美)적인 가치를 지닌다. 그래서 세계 여러 지역과 민족마다 선호하는 경향이 달랐으며, 20세기 후반과 21세기의 대중음악 속에서는 리듬이 중심 요소가 되었다. 1900년대 초 블루스에 의해 일깨워진 리듬을 통해서 락이 탄생되었다.

누군가 “음악은 선율과 화음이 아름다와야 한다. 그리고 리듬은 반주의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의 대중음악을 이해하는데에 어려움이 많게 될 것이다. 현대 전 세계 팝음악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힙합과 R&B와 블랙 팝을 들어보라. 대부분 16비트와 어프 비트(Off Beat)에 강세가 주어진 경우가 많고, 특히 힙합에서는 리듬이 보컬로 구사되고, 선율이 반주로 깔려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종의 역전이라 볼 수 있다.

더우기 다른 여타 장르에서도 지금의 리듬중심적 조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흑인음악의 특성을 받아들이고 있다. 헤비메탈, 팝, 뉴에이지, 영화음악 등의 전 장르에서 그러한 변화가 일고 있으며, 민속 리듬악기의 현대적인 재해석과 연주가 성행하고 있다.

언제 끝날진 모르지만 여하튼 지금은 리듬의 시대이다. 여러분들은 화성학과 동등한 시간을 리듬을 공부하는데에도 투자해야만 한다. (2002년 7월)

2017년 5월, 위의 옛 머리말로 개정판 인사를 대신한다.

이 책을 사랑하는 예진, 유나에게 바친다.

저자 박운영.

# 교육과 부록 데이터

필자는 오랜 세월동안 미디 오케스트레이션을 연구/집필/교육해 왔으며 많은 제자들이 실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뮤지컬/영상/앨범 음악을 창작해 왔고, 대학/대학원의 강의를 하며 쌓아온 기법들을 전수합니다. 단순 경험적 노하우가 아닌 체계있고 책임감이 있는 교육 시스템을 중요시 합니다. '미디 오케스트레이션'의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과 든든한 등대, 길잡이가 되고 싶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레슨에 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책을 공부하기 위한 부록 데이터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midist.pe.kr](http://www.midist.pe.kr)

[newjaninto@naver.com](mailto:newjaninto@naver.com)

# 차례

<b>제1장: 장르이야기 I</b> .....	<b>1</b>
1. 블루스 (Blues) .....	1
2. 재즈 (Jazz) .....	3
3. 락앤롤 (Rock 'n' Roll) .....	6
4. 락 (Rock) .....	7
5. 하드락 (Hard Rock) .....	8
6. 헤비메탈 (Heavy Metal) .....	9
7. 소울과 핑크 (Soul&Funk) .....	14
8. 디스코 (Disco) .....	15
9. 퓨전 재즈 .....	16
<b>제2장: 장르 이야기 II</b> .....	<b>18</b>
1. 얼터너티브 락 (Alternative Rock) .....	18
2. 하드 코어 (Hardcore) .....	19
3. 힙합과 현대 R&B .....	20
4. 하우스 (House)와 유로비트 (Euro Beat) .....	23
5. 테크노 (Techno) .....	25
6. 에이시드 재즈 (Acid Jazz) .....	27
<b>제3장: 리듬을 연주하는 악기들</b> .....	<b>28</b>
1. 드럼 .....	28
2. 베이스 (기타, 신스) .....	29
3. 퍼커션 .....	31
4. 멜로디/코드악기 .....	32
5. 인성 .....	33
<b>제4장: 드럼의 이해</b> .....	<b>35</b>
1. 드럼의 생김새 .....	35

2. 드럼 연주의 특징 .....	35
3. 드럼 입력의 예 .....	36
4. 드럼 구성악기의 특징 .....	37
<b>제5장: 타악기의 음역별 역할 .....</b>	<b>40</b>
<b>제6장: 리듬의 구성원리 - 배치 .....</b>	<b>44</b>
1. 베이스 드럼의 배치변화 .....	45
2. 하이햇의 배치변화 .....	48
3. 스네어 드럼의 배치변화 .....	53
<b>제7장: 리듬의 구성원리 - 강제 .....</b>	<b>56</b>
1. 8비트에서의 강박의 우선 순위 .....	58
2. 16비트에서의 강박의 우선 순위 .....	58
3. 원칙의 변화 .....	59
4. 32비트에서의 강박의 우선 순위 .....	60
5. 홀수 분할에서의 강박처리 .....	61
6. 알토/테너/베이스 계열의 강박 처리 .....	62
7. 꾸밈음과 당김/밀림의 강박 .....	64
8. 고스트 노트 .....	65
9. 어프 비트 (Off Beat) .....	66
<b>제8장: 리듬의 구성원리 - 음색 .....</b>	<b>68</b>
1. 소프라노 계열의 음색변화 .....	69
2. 알토/테너 계열의 음색변화 .....	71
3. 베이스 계열의 음색변화 .....	73
<b>제9장: 드럼 - 8비트,16비트 .....</b>	<b>74</b>
1. 8비트 악보연습 .....	74
2. 8비트 패턴연습 .....	75
3. 16비트 패턴연습-하이햇 심벌 .....	78
4. 16비트 패턴연습-베이스 드럼 .....	79
5. 16비트 실전연습 (초급) .....	81

6. 16비트 실전연습 (중급) .....	83
<b>제10장: 드럼 - 스윙&amp;트리플릿&amp;32비트 .....</b>	<b>85</b>
1. 패턴 연습 .....	86
2. 실전 연습 .....	87
<b>제11장: 베이스 기타의 이해 .....</b>	<b>89</b>
<b>제12장: 베이스 - 8비트 .....</b>	<b>92</b>
1. 패턴연습 .....	92
2. 실전연습 .....	96
<b>제13장: 베이스 - 16비트 .....</b>	<b>98</b>
1. 패턴연습 .....	98
2. 실전연습 .....	100
<b>제14장: 베이스 - 스윙&amp;트리플릿&amp;32비트 .....</b>	<b>104</b>
1. 패턴연습 .....	104
2. 실전연습 .....	107
<b>제15장: 드럼 - 8비트 필인 .....</b>	<b>108</b>
1. 패턴연습 .....	108
2. 실전연습 .....	110
<b>제16장: 드럼 - 16비트 필인 .....</b>	<b>112</b>
1. 패턴연습 .....	112
2. 실전연습 .....	114
<b>제17장: 드럼 - 스윙&amp;트리플릿&amp;32비트 필인 .....</b>	<b>116</b>
1. 패턴연습 .....	116
2. 실전연습 .....	118
<b>제18장: 에스닉 퍼커션과 라틴팝 .....</b>	<b>119</b>
1. 봉고 .....	119

2. 롱가와 퀴카 .....	120
3. 팀발레와 카우벨 .....	121
4. 마라카스 .....	121
5. 라틴 팝 .....	122
6. 패턴과 실전 연습 .....	123
7. 실전연습 .....	126
<b>모범답안 .....</b>	<b>128</b>



# 제1장: 장르이야기 I

서양 대중음악의 변천사를 설명하고자 할 때 사실 그 뿌리는 유럽 클래식이라는 거대한 산맥과 만나게 된다. 그러나 클래식의 주요 향유층은 귀족과 전문 음악인들이었다. 대중이 즐겨듣는 음악이 음악사의 큰 흐름으로 자리잡게 된 것은 1900년 초 미국 블루스의 시작 부터였다.

따라서 대중음악을 다루는 본 교재에서는 시야를 다소 좁혀 미국 블루스 이후에 발생한 음악들과 그와 동시대의 타 지역에서 발생한 음악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1. 블루스 (Blues)

블루스의 기원은 1800년대 후반 흑인 영가, 노동요에서 찾을 수 있다. 남부 미시시피 델타의 흑인 노예들이 농장에서 노동과 굶주림, 멸시를 참아내며 흥얼거리던 노래였다. 주로 가난이나 시련 또는 고통 속에 생활의 탄식, 괴로움, 슬픔, 절망감을 노래로 엮었는데 이러한 노래에는 샤프트, 흑인영가의 절규와 리듬과 감정이 있었다.

연주자 대부분이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없이 프레이즈와 스탠자에 대한 블루스의 전통을 발전시켜 나갔으며 그 과정 속에서 이전까지의 고전적인 화성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종류의 음악이 만들어지게 된다.

초기에는 짧게 반복되는 가사와 12마디 정도의 길이, 4/4박자 형식으로 통기타와 하모니카, 아프리카 토속악기 등으로 반주되던 형태였는데 이때 로버트 존슨(Robert Johnson), 소니 보이 윌리엄슨(Sonny Boy Williamson) 크게 활약했는데 이런 형태를 특히 농촌 블루스(Country Blues)라 일컫는다.

이후에 빠르고 경쾌한 리듬을 갖고 대중과 좀더 친근해지는 도시적인 블루스가 나타났는데 이때 머디 워터스(Muddy Waters), 존리 후커(John Lee Hooker), 엘모스 제임스(Elmore James), 비비 킹(B.B.King) 등이 활약한다. 이때 리듬앤 블루스(R&B)라는 리듬이 더욱 강조된 형태가 나타난다. 이것은 일렉기타의 탄생과도 관련이 있다.



<알버트 킹>



<비비킹>

그리고 1940년대 이후에는 Micheal Bloomfield, Eric Clapton, Roy Buchanan, Duane Allman, Stevie Ray Vaughan 등의 백인 블루스 연주인들도 등장하게 된다.

한편 뉴올리언즈 지방에서는 타 지역과 달리 선동의 의미로 금지되었던 드럼이 허용되었다. 그 결과 블루스와는 다른, 드럼에 의한, 다소 느낌이 다른 음악이 생겨났는데 이것이 바로 재즈이다. 이곳과 함께 시카고에서도 재즈와 블루스가 만나 서로의 장점을 받아 들이면서 '재즈에서 블루스의 향기'가 '블루스에서는 재즈의 채취'가 느껴지기 시작한다.

재즈는 화려한 음악적 수사로 감정적인 충동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음악이라면 블루스는 감정적인 것들을 음악적 기호를 통해 구체화시킨 음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멤피스로 옮겨간 블루스는 1950년대에 로큰롤을 탄생시켜, 지금 우리 시대의 록 음악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블루스의 음악형식적 특징을 정리하자면;

블루스는 '블루노트'(Blue Note)라는 특이한 음계를 사용하는데 서양 장조음계의 기준으로 볼 때 제3음, 5음 그리고 7음이 반음씩 내려가 있다. 그러나 이 음계는 멜로디를 이끄는 데에만 사용되고 반주에는 서양의 장조 화음을 사용된다. 따라서 멜로디와 반주가 묘한 불협화음을 유발한다.

블루스의 두번째 특징은 리듬에 있다. 싱코페이션과 스윙(짝수 위치의 음들을 3연음의 마지막 위치로 지연시켜 연주), 그리고 약박에 부여되는 악센트에 의해 백인음악에서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울동을 불러일으킨다.

블루스의 세번째 특징으로 블루스 노래는 4마디씩의 단위가 3개 모여 결국 12마디가 1절을 이룬다. 12마디의 반 정도는 보컬이 맡고 나머지는 이를 모방한 악기연주가 채워진다.

## ■ 들어보기

♪ RB-001(Albert King - I'll Play The Blues For You).mp3

♪ RB-002(Freddie King - Sweet Home Chicago).mp3

♪ RB-003(B.B.King-Three O'Clock Blues).mp3

♫ RB-004(Eric Clapton - Layla).mp3

♫ RB-005(Sonny Boy Williamson - Good Evening Everybody).mp3

## ■ 주요 음악인 (약 1900년 초반 이후)

Robert Johnsons, Muddy Waters, B.B. King, Sonny Boy Williamson, T-Bone Walker  
Little Walter, Elmore James, Jimmy Reed, Howlin Wolf, Junior Wells, John Lee Hooker  
와 Buddy Guy, Bessie Smith(여가수), Koko Taylor, Willie Dixon, Albert King, Freddy  
King, Albert Collins, Micheal Bloomfield(백인), Eric Clapton(백인), Roy Buchanan(백인),  
Duane Allman(백인), Stevie Ray Vaughan(스티비 레이본-백인)

## 2. 재즈 (Jazz)

1920년대 이전에 처음 생성된 재즈 스타일을 뉴올리언즈 사운드라 일컫는다. 재즈는 한 때 프랑스가 지배했었던 미국 남부의 뉴올리언즈에서 발생했다. 블루스와는 달리 크레올(Creole)이라는 프랑스인과 흑인 사이의 혼혈계들이 시작한 음악이다. 이들은 백인보다는 못하지만 일반 흑인들보다는 나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바탕에 흑인 특유의 리듬감이 결합된 음악형태를 만들어 내는데 이것이 바로 재즈이다.

이때의 재즈는 트럼펫과 트럼본, 클라리넷 등이 강조되어 고적대 연주 같은 사운드였으며 이것을 뉴올리언즈 사운드라고 불리는데 버디 볼든(Buddy Bolden), 제리 롤 모튼(Jelly Roll Morton), 프레디 캐퍼드(Freddie Keppard) 등이 활약했다.

1920년대의 캔사스, 시카고에서는 솔로 즉흥연주와 준비된 악보에 의한 밴드의 반주가 결합되었는데 규모가 큰 빅밴드와 색소폰의 화려한 연주가 인기를 끌었다. 이것을 이른바 시카고 스타일이라한다. 이 시기에는 2박자 느낌의 뉴 올리언즈 스타일이 스윙감이 더해진 4박자 형태로 발전했다는 특징도 갖는다. 루이 암스트롱(Louis Armstrong), 빅스 바이더벡(Bix Beiderbecke), 킹 올리버(King Oliver) 같은 이들이 활약했다.

1930년대에는 스윙 재즈라하여 재즈가 가장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는 시기였다. 스윙(Swing)재즈의 율동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4박자의 각 박 사이에 악센트를 주는 오프비트(Off Beat)를 구사함으로써 더욱 인기를 얻게 된다. 대공황이 끝나고 라디오가 보급되면서 미국인들은 경쾌한 스윙 재즈에 열광하게 되고 클라리넷 주자인 베니 굿맨(Benny Goodman)이 로스엔젤레스의 팔로마 볼룸과 뉴욕의 카네기홀에서 성황리에 공연을 마침으로써 재즈는 공식적인 음악적 지위를 얻게 된다. 시카고 스타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솔로 주자가 즉흥연주를 하고 나머지 빅밴드는 미리 준비된 악보로 연주를 했으며 유럽스타일의 대위법적 멜로디와 화성적인 진행이 강조되었다. 듀크 엘링턴(Duke Ellington-피아노), 베니 굿맨(Benny Goodman-클라리넷), 글렌 밀러(Glenn Miller-트롬본), 카운트 베이시

(Count Basie-피아노), 콜맨 호킨스(Coleman Hawkins-색소폰)와 레스터 영(Lester Young-색소폰), 엘라 핏츠제랄드(Ella Fitzgerald-보컬)와 빌리 홀리데이(Billy Holyday-보컬) 등이 활약했다.



<베니 굿맨>



<듀크 엘링턴>

1940년대에는 비밥 재즈가 발생하였다. 스윙재즈가 상업적으로 성공하자 이에 반감한 이들이 이전의 재즈정신에 따라 아프리카적인 요소를 강조하고, 노래를 부를 때 "비밥 비밥"하는 뜻없는 소리를 내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것은 스윙 재즈와 달리 4, 5인조의 작은 규모로 각 연주자의 즉흥연주가 강조되었다. 음색과 화성이 대단히 강렬하여 감화음, 7도, 9도, 11도 화음을 구사하고 빠른 템포이긴 하지만 울동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대중성보다는 예술성이 강조되었다. 그래서 스윙 재즈와 비교된다하여 고전 재즈(Traditional Jazz, Classical Jazz)라 불리었다.

비밥 재즈에서의 특이한 점은 피아노가 리듬악기화 되고, 드럼이 멜로디 악기와 마찬가지로 기교적인 연주를 하며, 빠르고 자극적인 리듬을 구사한다. 찰리 파커(Charlie Parker-엘토 색소폰), 존 "디지" 질레스피(John "Dizzy" Gillespie-트럼펫)와 마일스 데이비스(Miles Davis-트럼펫), 마일트 잭슨(Milt Jackson-비브라폰), 오스카 페티포드(Oscar Pettiford-콘트라베이스)와 찰리 밍구스(Charlie Mingus-콘트라베이스), 케니 클락(Kenny Clarke-드럼)과 맥스 로치(Max Roach-드럼) 등이 활약했다.

1950년대에는 쿨 재즈라하여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이후 허탈감과 우울함에서 벗어나 부드럽고 신선한 형태의 재즈음악이 탄생한다. 정식으로 음악수업을 받은 음악인들이 클래식기법(화성법, 대위법, 무조성주의)을 접목시켜 이전보다 바이브레이션이 적어지고 부드럽고 서정적이며 조용하고 진지한 감상용 재즈를 만드는데 이것을 쿨 재즈라 일컬었다. 이때는 주로 트럼펫, 색소폰, 피아노, 기타, 콘트라베이스, 드럼으로 구성된 캄보밴드로 연주되었다. 마일스 데이비스(Miles Davis-트럼펫), 쳇 베이커(Chet Baker), 스탠 게츠(Stan Getz), 존 콜트레인(John Coltrane), 소니 롤린스(Sonny Rolins-색소폰), 맥스 로치(Max Roach-드럼), 호레이스 실버(Horace Silver-피아노), 데이브 브루벡(Dave Brubeck-피아노), 모던 재즈 4중주단(Modern Jazz Quartet) 등이 활약했다.

1960년대에는 프리 재즈라하여 젊은 흑인 재즈 음악인 오네트 콜맨 (Ornette Coleman)과 존 콜트레인(John Coltrane)에 의해서 본격화되었다. 초기에 화성적인 변화를 시도하던 것이 당시의 격심했던 흑백문제와 더불어 격하고 야성적이고, 날카로운 음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프리재즈는 전통적인 규칙보다는 연주자 각자의 즉흥성이 조성과 박자와 형식을 깨면서까지 표현되었으며, 우연적이고 아프리카적인 무조성성이 나타났다. 어떤 면에

서 이들은 미국 재즈보다 유럽 예술음악의 갈래인 전위음악과 가깝다. 존 콜트레인(John Coltrane-색소폰), 오네트 콜맨(Ornette Colman), 빌 에반스(Bill Evans), 웨스 몽고메리(Wes Montgomery), 마일즈 데이비스(Miles Davis), 레니 트리스타노(Lennie Tristano-피아노), 찰리 밉구스(Charlie Mingus-베이스), 아키 셰프(Archic Shepp-색소폰) 등이 활약했다.



<빌 에반스>



<チック 코리아>

1970년대에는 퓨전(Fusion) 재즈라하여 마일즈 데이비스는 존 맥로린, 칩 코리아, 웨인 쇼터 등 재즈계의 베테랑을 불러 모아 락음악과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재즈를 구사하였다. 비밥, 쿨, 프리재즈와 달리 협화음적이고, 기교적인 즉흥연주를 줄여 비교적 부드럽게 진행되며, 전기기타, 전기콘트라베이스, 전자피아노, 신디사이저 등을 사용하여 음향성과 예술성을 강조한 재즈이다. 쿨, 프리, 퓨전 재즈로 인하여 재즈음악은 더 이상 유흥음악이 아닌 한 시대를 대변하는 예술 장르로서 인정받게 된다. 마일즈 데이비스(Miles Davis), 칩 코리아(Chick Corea), 데이빗 샌본(David Sanborn), 도널드 버드(D. Byrd), 팻 메스니(Pat Metheny), 허비 행콕(Herbie Hancock), 존 맥로린(John McLaughlin-전기기타) 등이 활약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신 고전주의라하여 퓨전과 컨템포러리 재즈가 활기를 띠며 상업적으로 성공할 때 썸 윈튼 마샬리스는 비밥재즈를 재해석해 연주한다. 초기 재즈의 끈끈함 보다는 지적인 표현이 중시된다. 윈턴 마샬리스(Wynton Marsalis), 케니 개럿(Kenny Garrett), 월레스 로니(Wallace Roney) 등이 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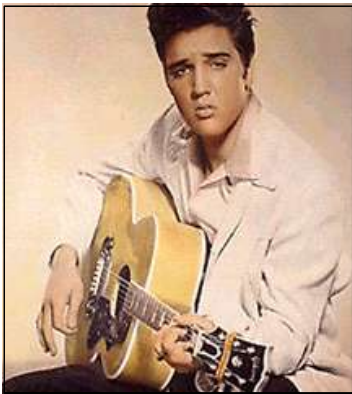
## ■ 들어보기

- ♪ RB-006(Benny Goodman - In The Mood).mp3-스윙
- ♪ RB-007(Duke Ellington - Take The -A- Train).mp3-스윙
- ♪ RB-008(Charlie Parker-Clowboat-to-China).mp3-비밥
- ♪ RB-009(Miles Davis - Misty).mp3-쿨

- ♫ RB-010(John Coltrane -Say it).mp3-쿨
- ♫ RB-011(John Coltrane - Billie's Bounce).mp3-프리
- ♫ RB-012(Bill Evans & Eddie Gomez - Invitation).mp3-프리
- ♫ RB-013(Miles Davis-The Doobop Song).mp3-퓨전
- ♫ RB-014(Chick Corea Electric Band).mp3-퓨전
- ♫ RB-015(Herbie Hancock-Call it 95).mp3-퓨전
- ♫ RB-016(Pat Metheny-Above The Treetops).mp3-퓨전

### 3. 락앤롤 (Rock 'n' Roll)

50년대 중반 무렵 필 히일리, 엘비스 프레슬리 등이 만든 음악으로서 흑인의 리듬과 블루스, 빅밴드를 모방하고 컨츄리 (Country), 웨스턴 (Western), 가스펠음악, 1940-50년대 부기우기 음악을 섞어 만들었다. 몸을 흔드는 식으로 춤을 추는데서 "Rock and Roll"이라 이름 붙였고 그것을 줄여 "락앤롤"이라 하였다. 컨츄리에서는 볼수 없었던 격정적이고 시끄럽고 자극적인 감정들이 블루스에서 전달된 것이다.



<엘비스 프레슬리>



<척베리>

록큰롤이 세상에 알려진 계기가 된 것은 빌 헤일리와 코메츠(Bill Haley & Comet)의 'Rock Around The Clock'이다. 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록큰롤은 매우 위험하고 불량한 음악이었다. 특히 TV에선 엘비스 프레슬리의 허리춤을 감추기 위해서 엘비스의 상반신만 방영하기도 했다.

참고로 락앤롤 가운데서도 백인의 컨츄리에 가까운 것을 라커빌리(Rockabilly)라 부른다.

## ■ 주요 음악인 (약 1940년대 이후)

엘비스 프레슬리(Elvis Presley), 척 베리(Chuck Berry), 빌 헤일리와 코메츠(Bill Haley & Comet), 버디 홀리(Buddy Holly), 리틀 리처드(Little Richard), 제리 리 루이스(Jerry Lee Lewis), 레이 찰스(Ray Charles), 패츠 도미노(Pats Domino), 에버리 브라더즈(Everly Brothers), 샘콕(Sam Cooke), 폴앵카(Paul Anka)

## ■ 들어보기

♪ RB-017(Elvis Presley - Burning Love).mp3

♪ RB-018(Chuck Berry - Johnny B. Goode).mp3

♪ RB-019(Little Richard - Somethin' Else).mp3

## ■ 블루스와 락엔롤의 차이

1. 블루스는 흑인(전체) 중심적, 락엔롤은 백인(청년) 중심적이다. 따라서 블루스는 백인 전체에 대한 반항이 내재되어 있고, 락엔롤은 백인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이 내재되어 있다.
2. 블루스는 애환에 의한 흑인의 저항을 노래하지만 락엔롤은 흥에 의한 청년의 저항을 노래한다.
3. 블루스가 베이스 기타의 역할과 음량 밸런스가 상대적으로 크다.
4. 사용하는 음계가 다르다.

----- [본문 요약] -----

# 제4장: 드럼의 이해

대중 음악 속에서의 리듬은 드럼에 의해 크게 주도된다. 여기서는 드럼의 생김새와 연주 특징과 실제감을 위한 벨로서티 처리법을 알아보자.

## 1. 드럼의 생김새

드럼은 베이스 드럼, 여러개의 탐탐, 하이햇 심벌, 두세 개의 심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곡과 밴드의 스타일에 따라서 각 구성악기의 크기와 종류가 달라진다.



<드럼의 생김새>

## 2. 드럼 연주의 특징

드럼은 기본적으로 한 세트가 이용되며 한 사람에게 의해서 연주됩니다. 한 세트에 여러 악기들이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소리낼 수 있는 악기의 수와 속도에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규칙이 있습니다.

1. 기본적으로 스틱(두 손)으로 연주하는 악기는 두 개까지만 동시에 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로 연주하는 클로즈 하이햇과 킥드럼은 그 두개의 제한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연주 가능합니다.
2. 크래쉬 심벌을 연주한 후 하이햇이 연주되려면 최소한 1박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3. 킥 드럼은 보통 8비트, 16비트 정도까지만 연주가 가능하지만(템포에 따라서 달라짐) 두 대를 사용하는 하드코어, 메탈에서는 32비트 정도도 연주 가능합니다.



<드럼의 악보 표기와 필인 연주>

그러나 현대의 테크노와 하우스 음악 등의 컴퓨터 음악에서는 위와 같은 규칙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입력되곤 합니다. 그리고 기보를 돕기 위해서 각 구성악기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약자를 표시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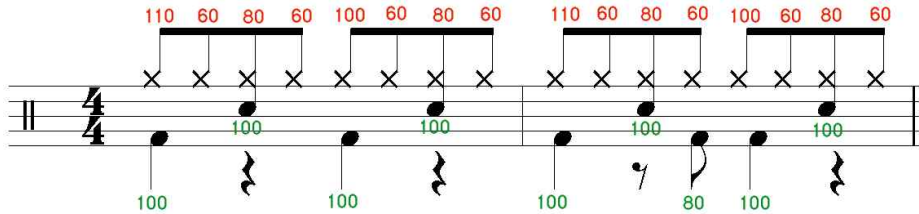
Cym.	심벌	o	오픈 하이햇
T.Cym.	톱 심벌	+	클로즈 하이햇
S.Cym.	사이드 심벌	Rim.	림 쇼트
H.H.	하이햇 심벌	L.T.	라지 탐탐
B.D.	베이스 드럼	S.T.	스몰 탐탐
S.D.	스네어 드럼	R	오른손으로 치기
		L	왼손으로 치기

### 3. 드럼 입력의 예

가장 널리 쓰이는 박자인 4/4박자 연주에서는 ‘강-약-중간-약’의 강세가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강세변화를 잘 주어야 리듬감이 잘 표현된다. 드럼의 벨로시티 변화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비교적 쉬운 몇가지 방법을 소개하겠다.

### ■ 8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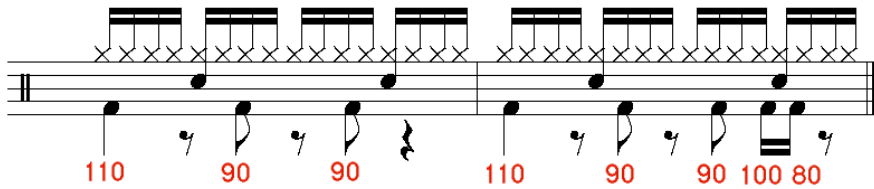
주로 8분 음표로 분할, 연주되는 것을 8비트(beat) 드럼 패턴이라고 부른다.



<8비트 드럼연주>

### ■ 16비트

16분 음표로 분할, 연주되는 것을 16비트 드럼 연주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하이햇과 베이스 드럼의 강세 변화가 중요하다.



<16비트 드럼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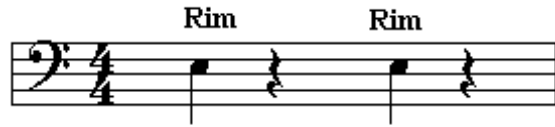
## 4. 드럼 구성악기의 특징

### ■ 베이스 드럼

베이스 드럼은 가장 낮은 음정에 해당되며 다른 드럼과 달리 발로 밟는 풋 페달(Foot Pedal)로 소리를 내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킥 드럼(Kick Drum)이라고도 한다. 그 크기 또한 가장 커서 보통 20~22인치 정도의 것들이 사용된다. 연주시 필요에 따라서는 한쪽의 헤드(북면)를 떼어내어 소리를 강조하거나 내부에 형철을 넣어 소리를 감쇄시키기도 한다.

### ■ 스네어 드럼

스네어 드럼은 헤드의 안쪽에 스네어라고 불리는 철로된 줄들이 달려있어 금속성이 가미된 독특하고 강렬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주로 리듬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다. 헤드를 고정하고 있는 테두리를 림(Rim)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치는 림 쇼트(Rim Shot 또는 Side Stick)라는 주법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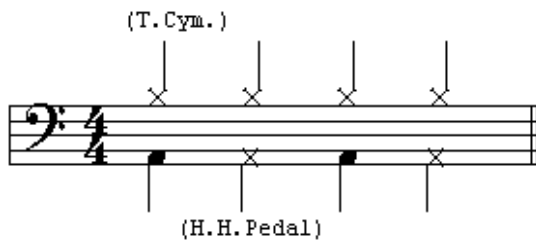
<스네어 와이어와 림 쇼트의 표기법>

### ■ 심벌과 하이햇 심벌

심벌은 드럼 세트에서 2개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을 라이드 심벌(Ride Cymbal 또는 Top Cymbal)이라 부르고, 그 외의 하나를 크래쉬 심벌(Crash Cymbal 또는 Side Cymbal)이라 부른다.


하이햇 심벌(HiHat Cymbal)은 스탠드 위에 두 장의 심벌을 서로 마주 보게 놓고서 풋 페달을 밟았을 때 서로 부딪쳐 소리나게하는 것이다. 이 주법을 하이햇 워크라 하는데 그러나 주로 사용되는 주법은 심벌이 닫혀진 상태에서 스틱으로 치는 하이햇 쇼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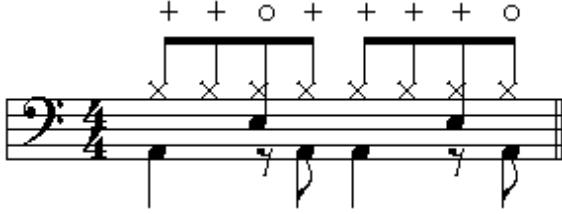
심벌과 하이햇은 악보상에서 같은 위치에 표시되는데 보통은 하이햇으로 연주하되 특별히 '(T.Cym.)'이라고 표시된 경우에만 심벌로 연주한다. 그리고 하이햇 워크에 의한 연주는 베이스 드럼의 위치에 표시하고 '(H.H.Pedal)'이라고 적는다.



<하이햇과 심벌의 기보예>

또, 강하게 파열음을 내는 크래쉬 심벌은 '(Crash)'나 '(C.Cym.)'이라고 표시한다.

이 클로즈 하이햇과 오픈 하이햇을 구분하기 위해서 음표 위에 각각 +와 o를 붙이거나 오픈 하이햇을 로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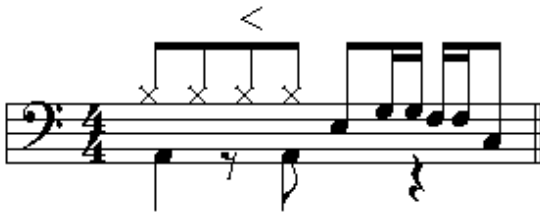


<클로즈 하이햇과 오픈 하이햇의 표기>

### ■ 탐탐

탐탐(TomTom)은 재질이나 구조가 스네어 드럼과 비슷하지만 헤드 안쪽에 스네어가 없다는 점이 다르다. 음색은 스네어 드럼보다 음정이 낮으며 비교적 덜 자극적이다. 그 크기에 따라서 여러 음정을 내는데 작은 것을 스몰 탐탐(Small Tom-tom)이라 하고, 큰 것을 플로어 탐탐(Floor Tom-tom) 또는 라지 탐탐(Large Tom-tom), 베이스 탐탐(Bass Tom-tom)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한 드럼 세트에 2개 이상에서부터 8개까지 장착된다.

악보상에는 스네어 드럼의 위아래로 음정을 구분하여 표시하는데 4~5개 정도밖에 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연주자의 해석에 의해 사용되는 탐탐이 달라질 수 있다.



<탐탐의 표기 (마지막 3,4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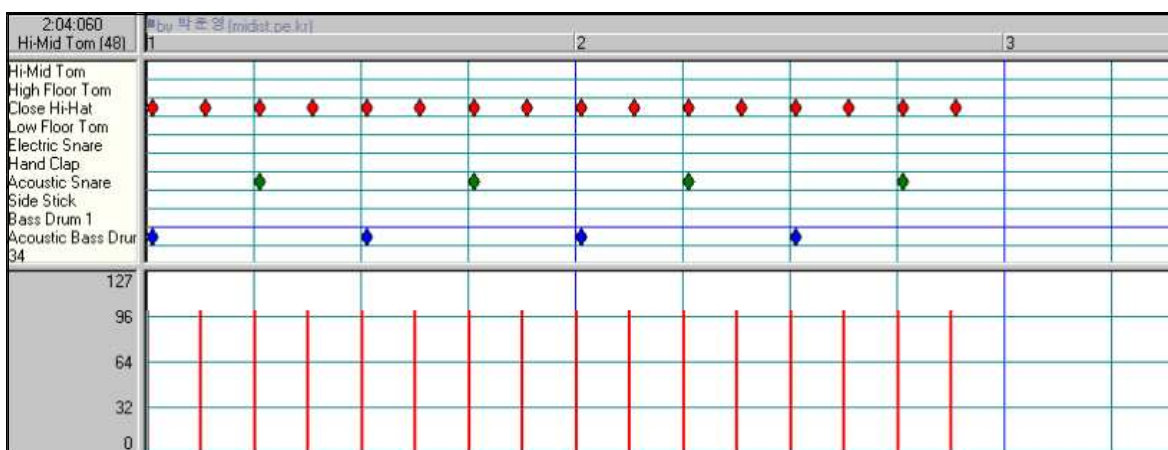
# 제6장: 리듬의 구성원리 - 배치

“리듬을 만드는데에도 어떤 규칙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보통 자신이 좋아하는 장르의 리듬을 그저 자주 듣고서 흉내내는 정도에서 리듬에 대한 공부를 끝내곤 한다. 그러나 단순히 들으면서 익숙해지는 정도의 그런 경험적인 방식으로 리듬을 공부하게 된다면 다른 여타의 다양한 장르들에 대한 응용과 창의적인 시도가 힘들어질 것이다.

현대는 혼합 장르의 시대로서 다양한 장르 간의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장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좋은 예가 펌프락, 애시드 재즈, 퓨전 재즈, 락앤랩 등이다.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보면 블루스의 탄생시기부터 지금까지 그 어떤 장르도 홀로 탄생된 것은 없으며 기존의 장르들의 여러 요소들이 결합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리듬을 공부할 때는 새로운 장르를 접할 때 그것이 어떤 요소들로 결합된 것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작곡자 자신만의 개성있는 리듬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리듬 습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닌 ‘구성원리를 알고 응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여러 장르들에 공통적으로 엿보이는 리듬 구성의 원리를 설명하고자 한다.

리듬은 통상적으로 배치의 변화, 강세의 변화, 음색의 변화를 통해서 다양하게 변형된다. 이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순한 8비트 패턴을 첫번째 원리인 ‘배치의 원리’에 따라서 변형시켜보자.



<🎧 RB-103.mp3>

배치의 변화란 몇 비트로 구분하고, 어떤 위치에다 소리를 배치하는가에 관한 원리이다. 구성원리 가운데서 리듬 형태를 결정짓는 가장 우선적인 원리이다.

베이스 계열(특히 베이스 드럼)은 덩치가 큰 악기가 많기 때문에 사람이 연주하는 악기의 경우에는 대개 2비트, 4비트, 8비트, 16비트 연주가 흔하며 그 이상의 분할 연주는 힘들다. 그러나 컴퓨터음악으로 표현되는 장르에서는 그 이상의 분할 연주도 종종 나타난다.

알토/테너 계열(특히 스네어, 탐탐, 봉고, 콩가 등)은 미국과 유럽 중심의 일반 팝에서는 2박과 4박 위치에 연주되는 경우가 흔하지만 재즈나 퓨전, 라틴, 아프리카, 아시아 풍의 음악 들 속에서는 소프라노 계열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연주되기도 한다.

소프라노 계열(특히 하이햇, 마라카스, 탬버린 등)은 베이스 드럼과는 달리 4비트, 8비트, 16비트, 32비트, 트리플릿(8분/16분/32분 잇단음표), 롤(Roll=64분음표 이상으로 분할되는 트레몰로 연주) 등의 다양한 비트가 가능하다.

## 1. 베이스 드럼의 배치변화

### ■ 베이스 드럼의 8비트 변화

단조로운 2비트 간격의 베이스 드럼의 중간 중간에 새로운 노트를 넣어보거나 이동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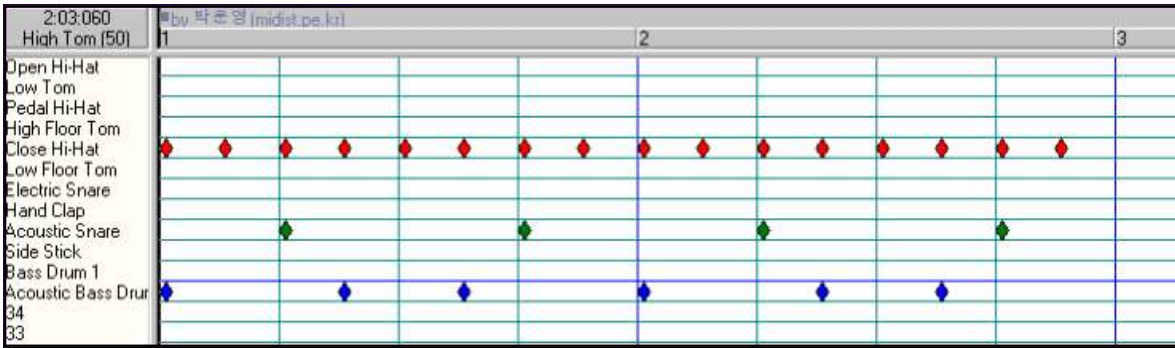
The image shows a MIDI piano roll for a drum track. The time signature is 2/4, and the tempo is 1060. The track is titled 'High Tom (50)'. The piano roll displays a pattern of notes for various drums: High Floor Tom (red diamonds), Acoustic Snare (green diamonds), Side Stick (green diamonds), Bass Drum 1 (blue diamonds), and Acoustic Bass Drum (blue diamonds). The notes are placed on a grid with vertical lines every 2 beats. The pattern shows a consistent 2-beat interval for the bass drum.

< RB-104.mp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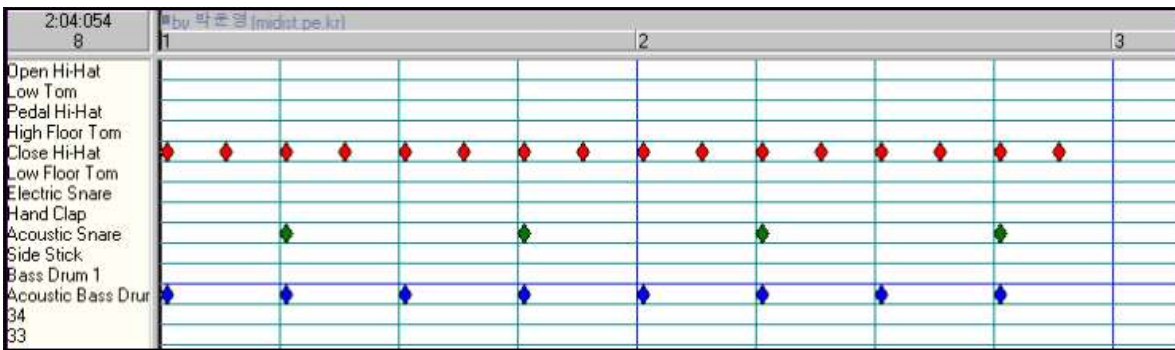
The image shows a MIDI piano roll for a drum track, similar to RB-104. The time signature is 2/4, and the tempo is 1060. The track is titled 'High Tom (50)'. The piano roll displays a pattern of notes for various drums: High Floor Tom (red diamonds), Acoustic Snare (green diamonds), Side Stick (green diamonds), Bass Drum 1 (blue diamonds), and Acoustic Bass Drum (blue diamonds). The notes are placed on a grid with vertical lines every 2 beats. The pattern shows a consistent 2-beat interval for the bass drum, with a new note added in the middle of the interval.

< RB-105.mp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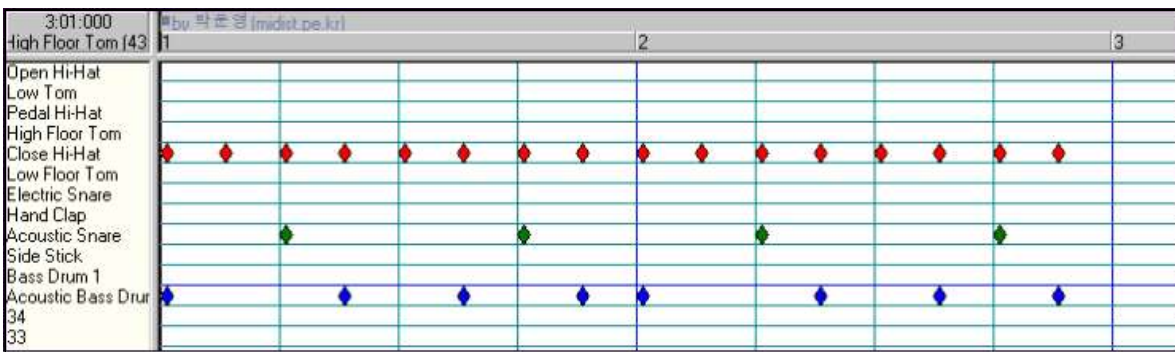
제6장: 리듬의 구성원리 - 배치



< RB-106.mp3 >



< RB-107.mp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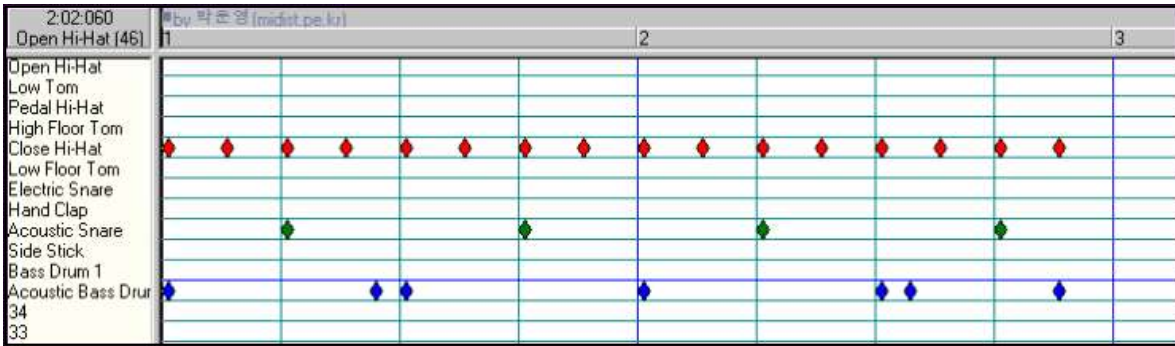


< RB-108.mp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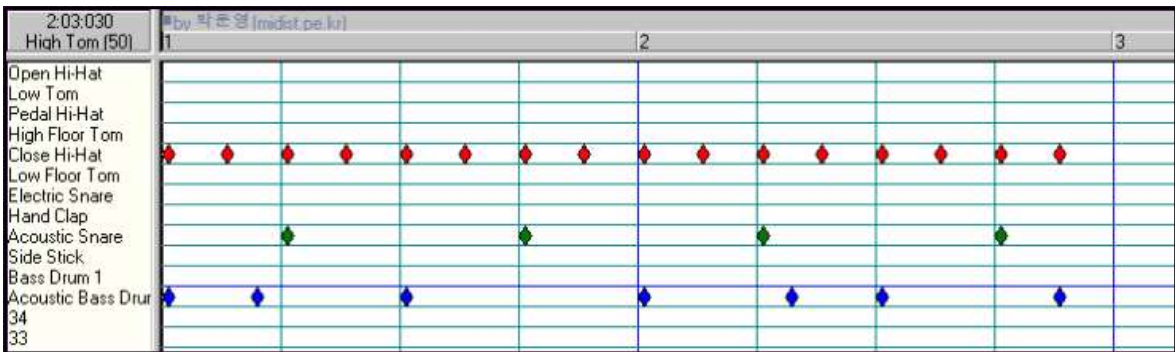
■ 베이스 드럼의 16비트 변화

단순한 생각이긴 하지만 16비트의 변화가 가해질 때부터 우리는 흔히들 '멋지다'란 말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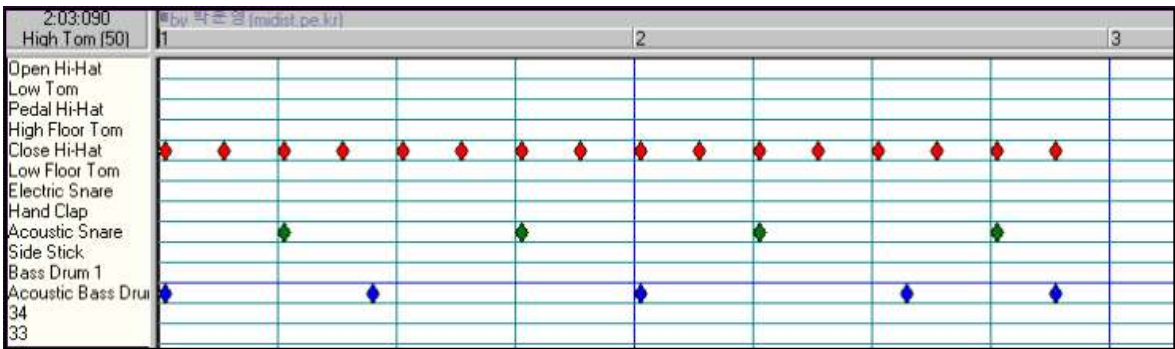
제6장: 리듬의 구성원리 -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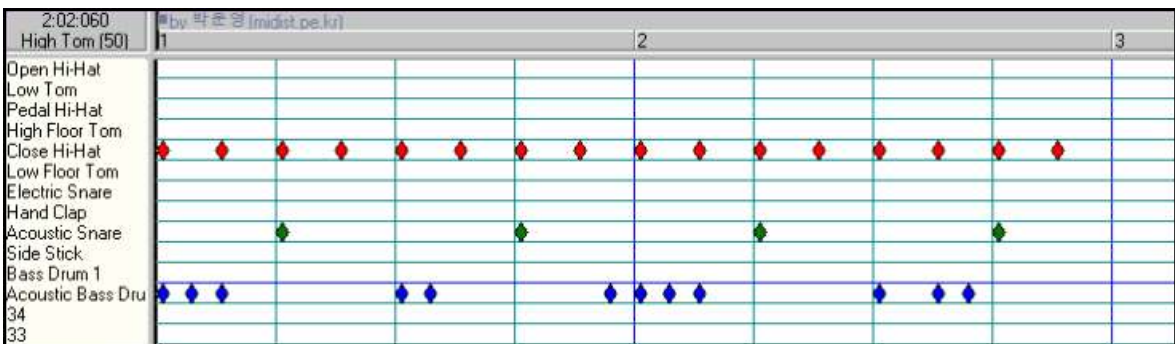
<♫ RB-109.mp3: 정박에 대하여 앞서 오는 경우와 뒤따라 오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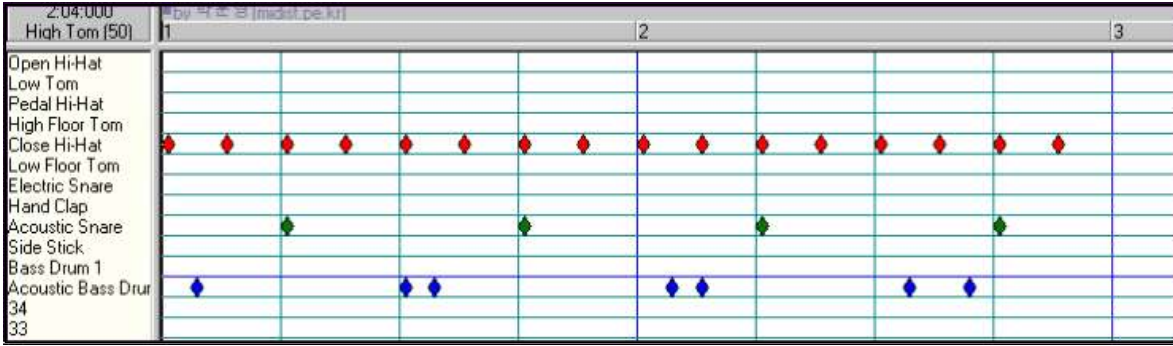
<♫ RB-110.mp3: 스네어에 대하여 앞서 오는 경우와 뒤따라 오는 경우>



<♫ RB-111.mp3: 정박을 벗어나 앞당겨진 경우(싱크로페이션)와 뒤로 밀려진 경우(딜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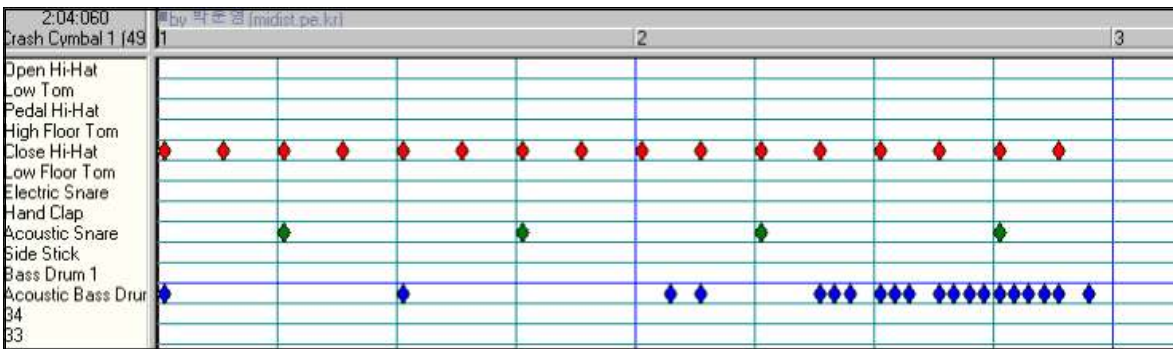
<♫ RB-112.mp3: 연타된 경우>



<🎵 RB-113.mp3: 정박의 생략을 강조한 경우>

### ■ 베이스 드럼의 32비트 변화

베이스 드럼의 32비트 연주는 사람에게겐 힘든 연주이고, 격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기본 패턴으로 쓰이기 보다는 컴퓨터 음악이 사용되는 테크노, 하드코어, 댄스, 힙합 등의 필인 (Fill In) 부분에서 종종 나타난다(종종 락, 헤비메탈, 퓨전 등에서 2대의 베이스 드럼을 준비해 두 발로 연주하는 경우도 있다).



<🎵 RB-114.mp3>

## 2. 하이햇의 배치변화

### ■ 하이햇의 8비트 변화

하이햇의 8비트 연주는 아주 기본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의 변화는 드문 편이다.

1:02:030 #bv 박준영 (midist.pe.kr)

Electric Snare (40) 1 2 3

High Floor Tom  
Close Hi-Hat  
Low Floor Tom  
Electric Snare  
Hand Clap  
Acoustic Snare  
Side Stick  
Bass Drum 1  
Acoustic Bass Drur

<🎵 RB-115.mp3>

2:02:105 #bv 박준영 (midist.pe.kr)

Low-Mid Tom (47) 1 2 3

High Floor Tom  
Close Hi-Hat  
Low Floor Tom  
Electric Snare  
Hand Clap  
Acoustic Snare  
Side Stick  
Bass Drum 1  
Acoustic Bass Drur

<🎵 RB-116.mp3: 8비트 스윙(swing) 연주. 8분 위치에 있는 음들이 3잇단 음표의 마지막 위치로 이동한다. 재즈나 알앤비 등에서 흔하게 쓰인다.>

### ■ 하이햇의 16비트 변화

1:02:100 #bv 박준영 (midist.pe.kr)

Low-Mid Tom (47) 1 2 3

High Floor Tom  
Close Hi-Hat  
Low Floor Tom  
Electric Snare  
Hand Clap  
Acoustic Snare  
Side Stick  
Bass Drum 1  
Acoustic Bass Dr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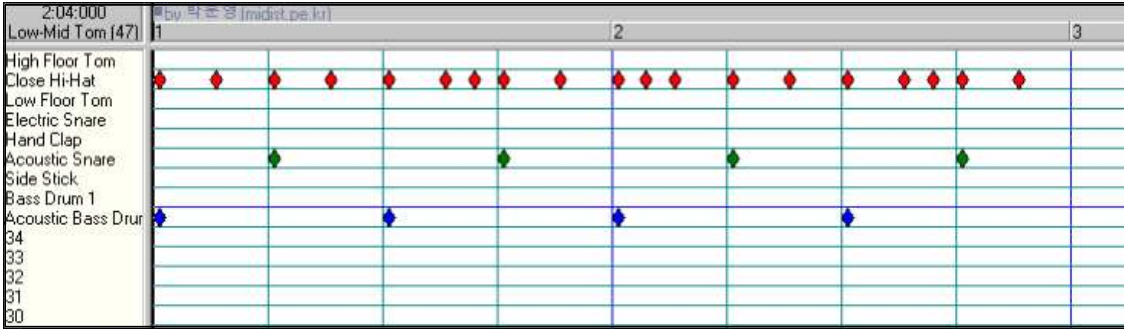
<🎵 RB-117.mp3: 하이햇의 가장 기본적인 16비트 연주이다.>

2:04:075 #bv 박준영 (midist.pe.kr)

Low-Mid Tom (47) 1 2 3

High Floor Tom  
Close Hi-Hat  
Low Floor Tom  
Electric Snare  
Hand Clap  
Acoustic Snare  
Side Stick  
Bass Drum 1  
Acoustic Bass Dr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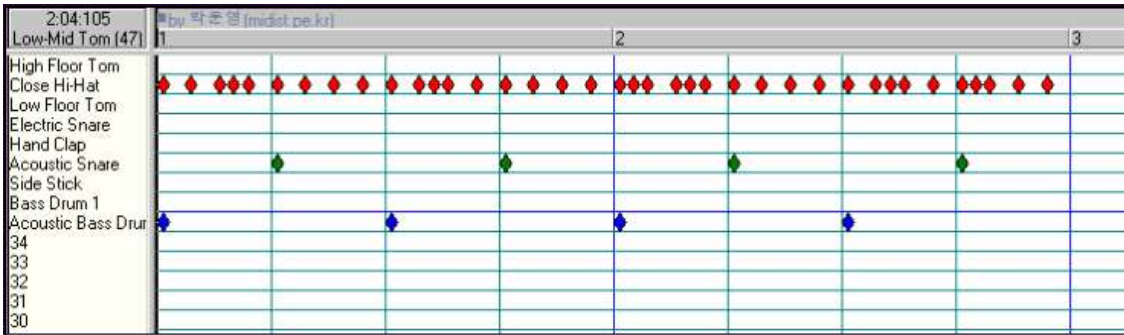
<🎵 RB-118.mp3>



<♬ RB-119.mp3>

### ■ 하이햇의 32비트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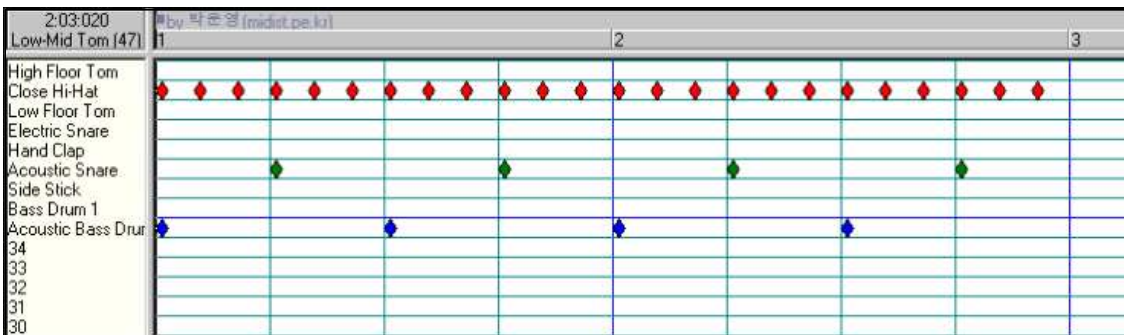
32비트로 내내 연주하는 경우는 드물고 16비트의 기본 속에 첨가되는 형식이 많다.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 첨가음들은 대개 약하게 연주되어 흥을 돋구는 역할을 한다.



<♬ RB-120.mp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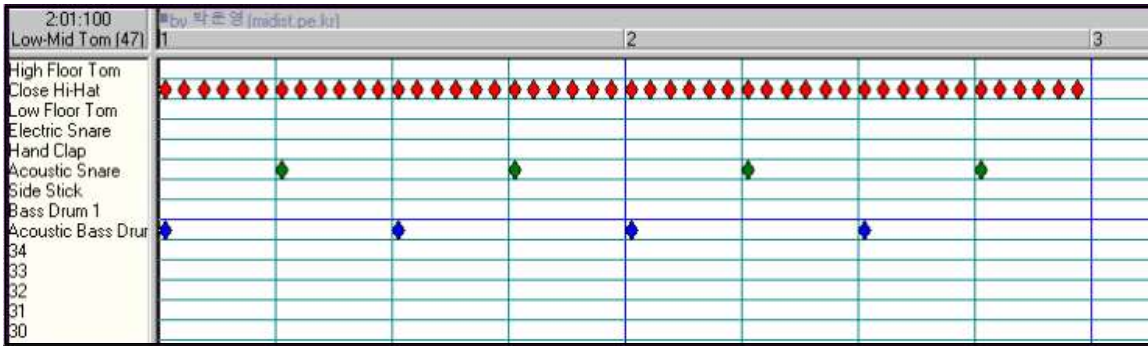
### ■ 하이햇의 트리플릿 연주

트리플릿(Triplete: 3잇단음표, 흡수박) 연주는 특히 흑인 계열의 음악 속에 종종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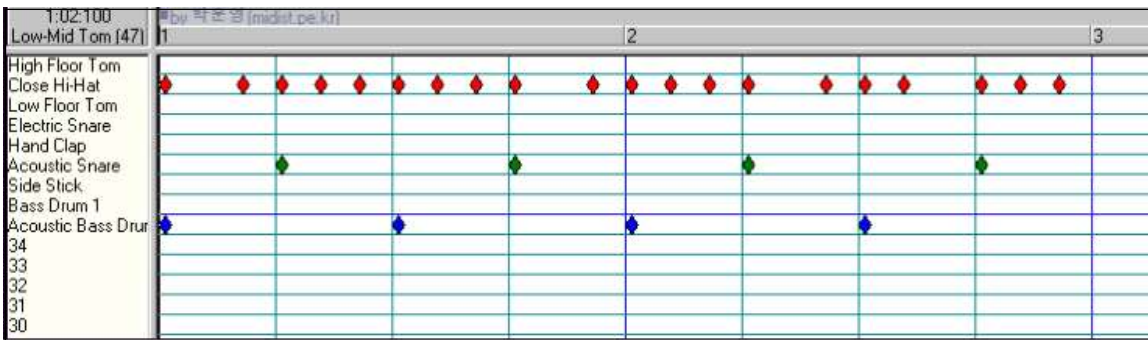


<♬ RB-121.mp3: 8분 3잇단 음표로의 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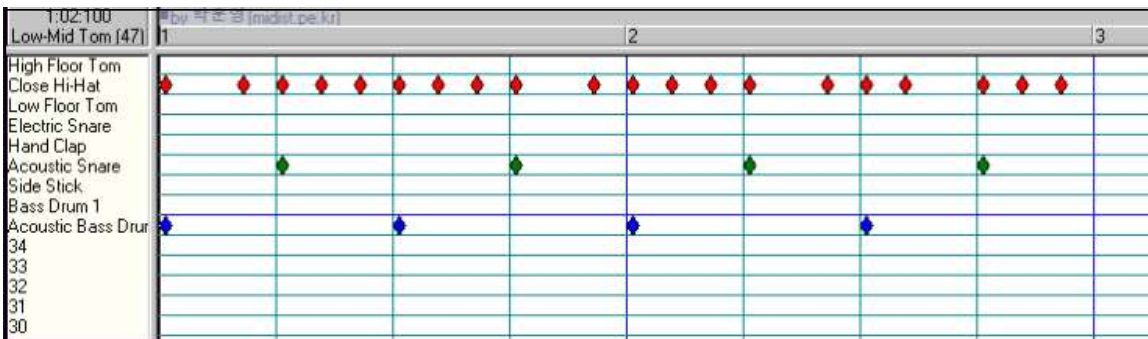
제6장: 리듬의 구성원리 -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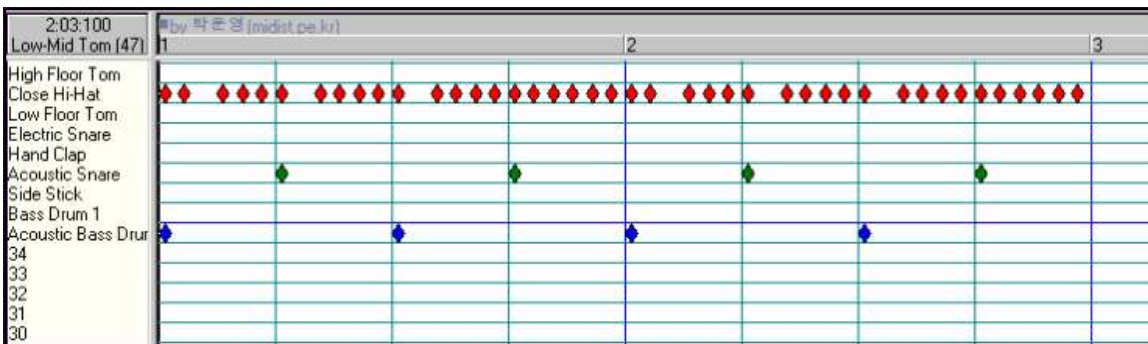
<♫ RB-122.mp3: 16분 3잇단 음표로의 연주>



<♫ RB-123.mp3: 8분 3잇단 음표로에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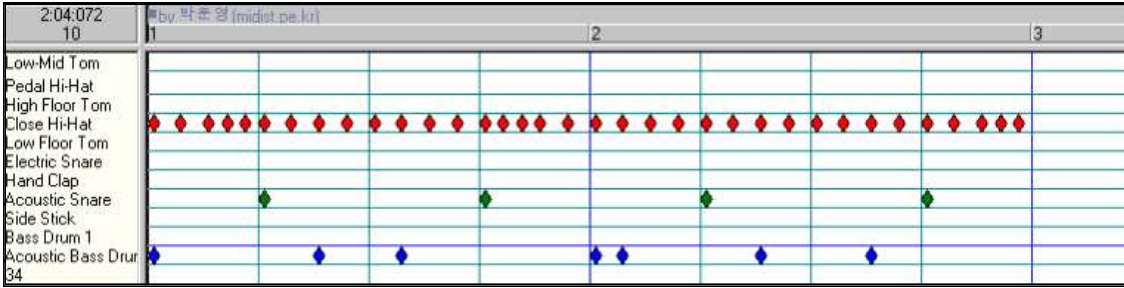


<♫ RB-124.mp3: 8분 3잇단 음표로에서의 변화>



<♫ RB-125.mp3: 16분 3잇단 음표로에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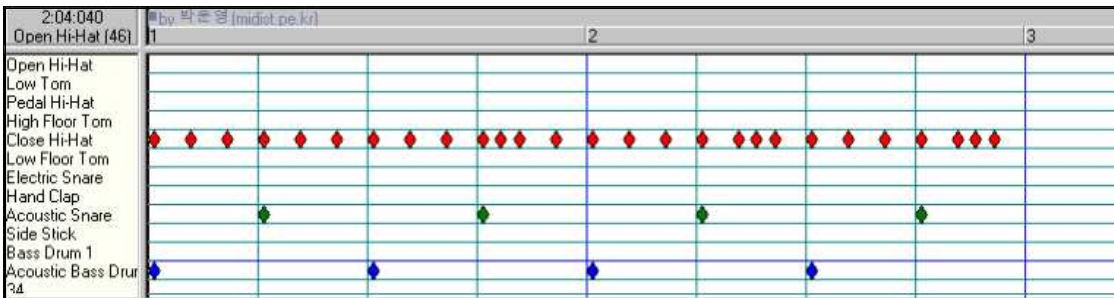
■ 하이햇의 트리플릿 첨가



<♫ RB-126.mp3: :짝수분할 속에 첨가되는 트리플릿 하이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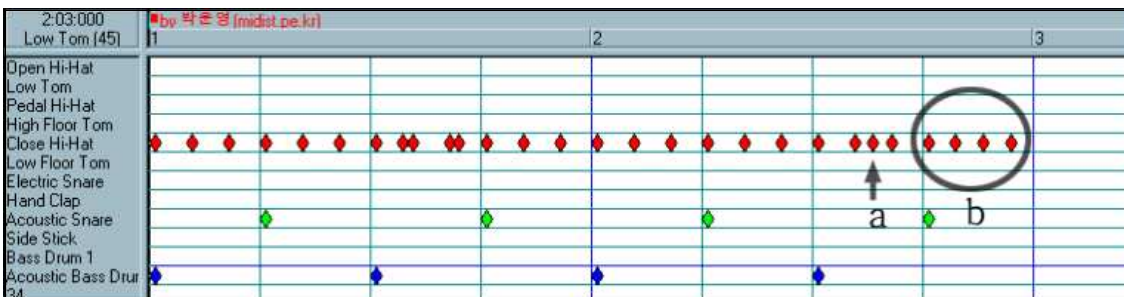
트리플릿 연주는 계속 진행되기도 하지만 일반 짝수 분할(8비트, 16비트)이나 홀수 분할 (트리플릿) 속에 살짝 첨가되어 새로운 분위기를 부여하기도 한다. 일단 짝수 분할 속에 홀수 분할음을 살짝 첨가하는 것은 대부분 잘 어울린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홀수 분할 속에 짝수 분할음을 무턱대고 첨가하는 것은 듣기가 거북하다는 것이다. 다음의 두 가지 규칙에 따른다면 그 거북함을 피할 수 있게 된다.

- ① 기본적으로 홀수 분할에는 홀수 분할을 첨가한다. 예를 들어서 8분 트리플릿의 리듬 속에는 16분 트리플릿을 첨가하는 것이 가장 잘 어울린다.



<♫ RB-127.mp3: :홀수 분할 속에 첨가되는 트리플릿 하이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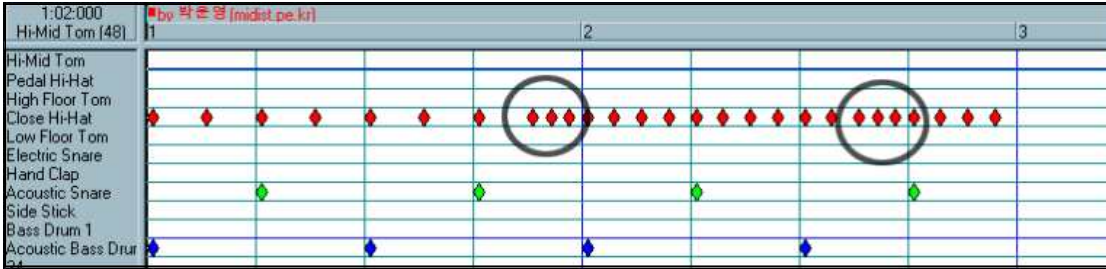
- ② 홀수 분할에 짝수 분할을 첨가할 때는 최소 8분길이 동안의 연주로 첨가되는 것이 듣기 좋다.



<♫ RB-128.mp3: 홀수 분할 속에 첨가되는 짝수 분할=어색하게 들린다>

바로 위의 경우처럼 홀수 분할 속에 짝수분할음을 넣었을 경우에는 어색하고 뭔가 리듬을 놓친 어설픈 연주처럼 들린다. 그러나 a음과 같이 8분위치 혹은 4분위치에 놓일 경우에 비교적 들을만 하고, 또 b의 경우처럼 8분 음표 이상의 길이동안 짝수 분할이 연주되는 경우도 들을만하다.

③ 짝수 분할 속에 홀수 분할을 첨가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무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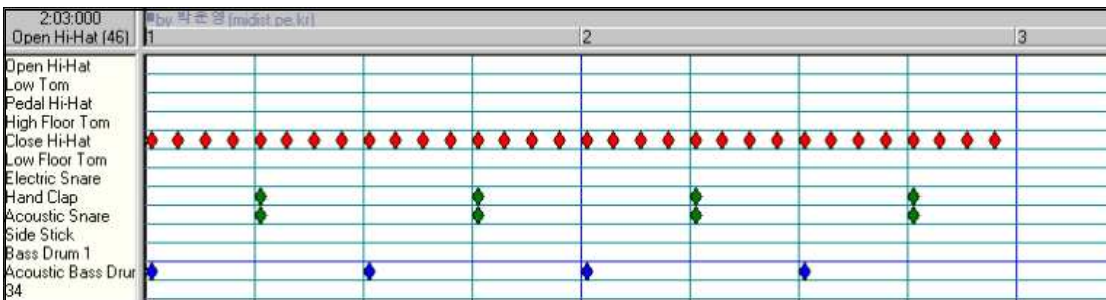


<♫ RB-129.mp3: 짝수 분할 속으로 홀수 분할음을 첨가할 때는 대체로 잘 어우러진다>

### 3. 스네어 드럼의 배치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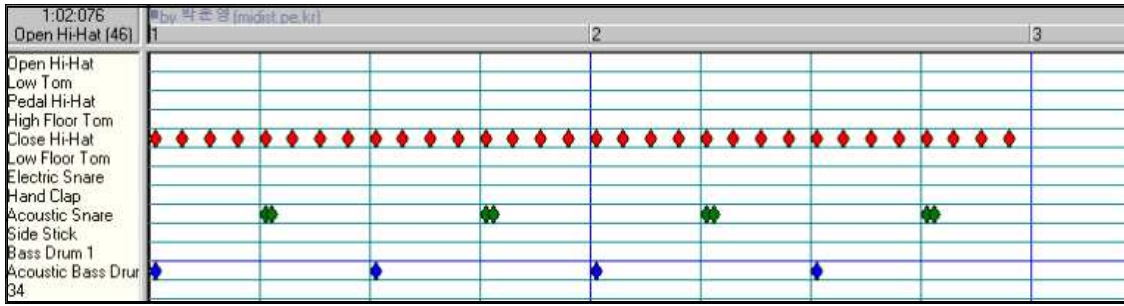
#### ■ 스네어의 2박, 4박 위치

클래식이나 크로스오버와는 달리 팝 음악 속에서 스네어는 위치의 변화가 적은 편이다. 필자가 무수히 많은 팝 음악을 들어봤을 때 스네어가 2박과 4박에 놓인 경우는 거의 90%에 가까운 듯했다(필인의 경우를 제외한 기본 패턴 속에서). 그러나 다른 악기들 못지 않게 다양한 위치 변화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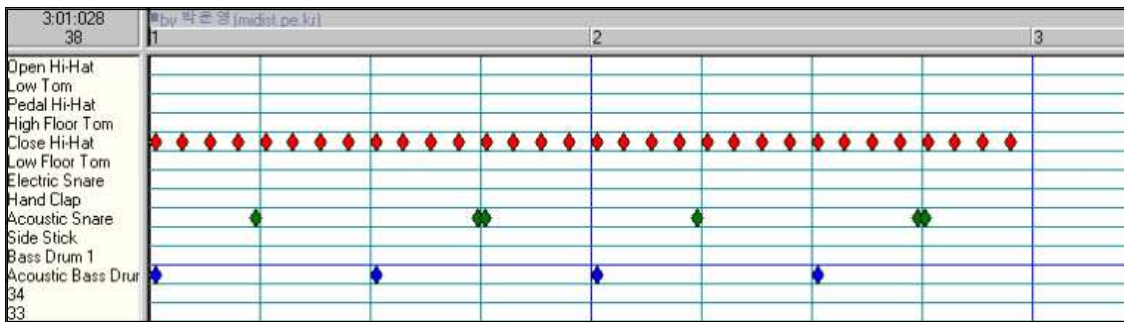


<♫ RB-130.mp3: 핸드클랩과 함께 2와 4박에 놓인 스네어 드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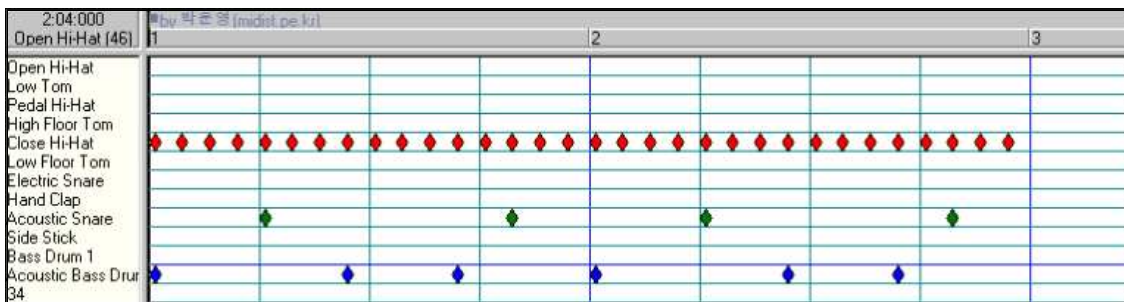
제6장: 리듬의 구성원리 -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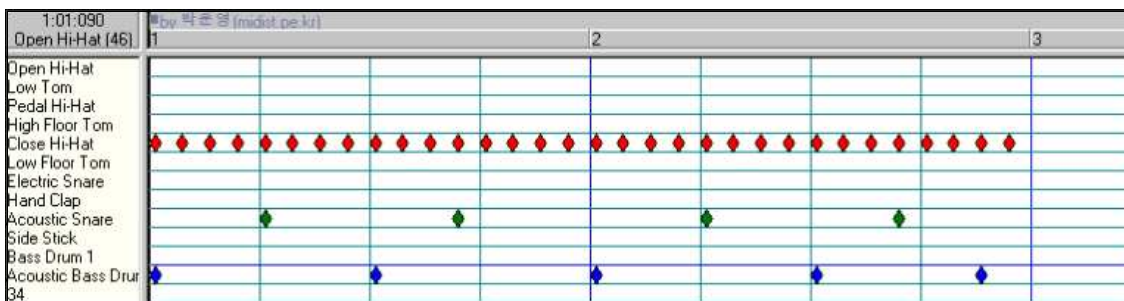
<♩ RB-131.mp3: 2개의 스네어 스틱으로 연주되는 경우>



<♩ RB-132.mp3: 스네어가 약간씩 앞당겨져 연주되는 드라이빙 락(Driving Rock) 스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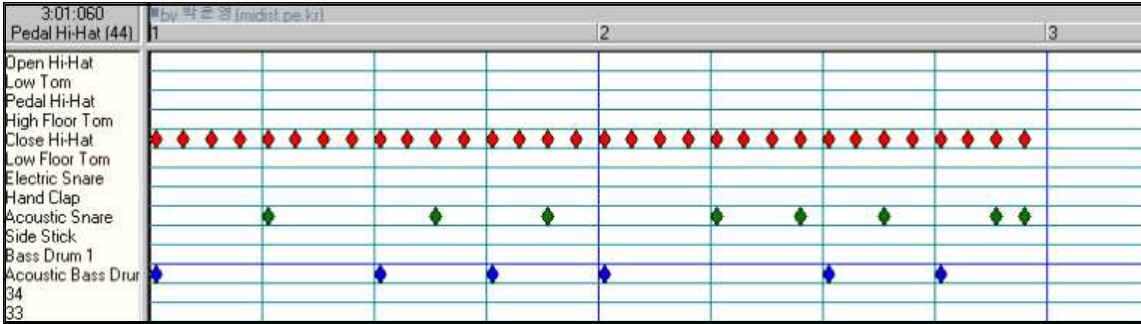


<♩ RB-133.mp3: 펑크 혹은 퓨전 스타일로 뒤로 16비트 밀린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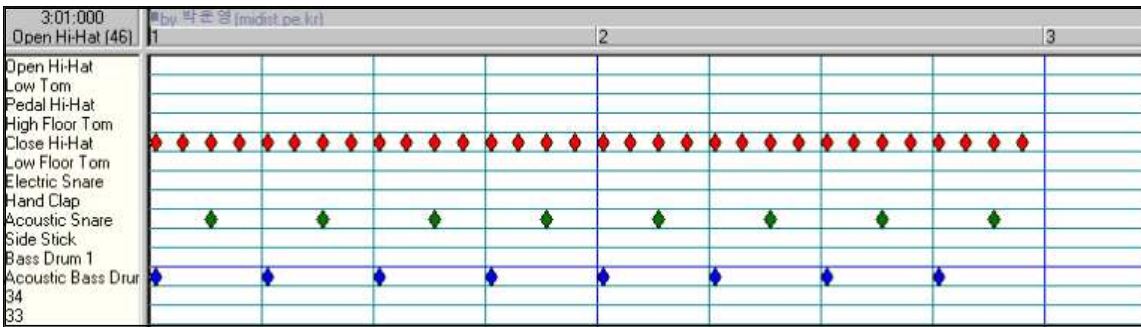


<♩ RB-134.mp3: 16비트 앞당겨진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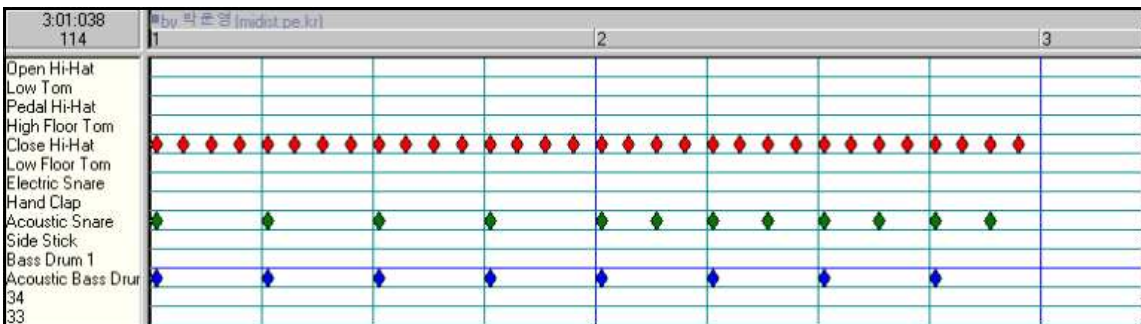
제6장: 리듬의 구성원리 -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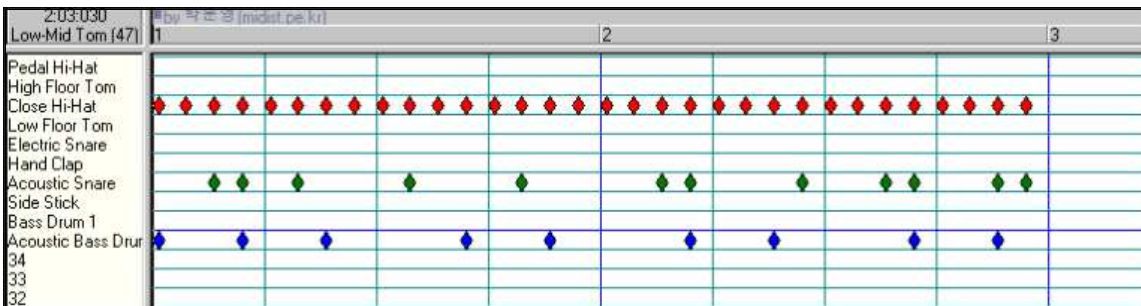
<♫ RB-135.mp3: 베이스와 스네어의 교차로 노래하는 듯한 리듬>



<♫ RB-136.mp3: 빠른 템포 속에서 8분위치의 어프비트(Off Beat)에 위치시킨 경우>



<♫ RB-137.mp3: 베이스 드럼과 함께 진행된다 8비트로 분할되는 경우>



<♫ RB-138.mp3: 퓨전 스타일의 활발한 스네어/베이스 드럼의 교차>

초보자들은 특히 퓨전 스타일의 스네어와 베이스의 활발한 교차 연주에 어려움이 많은데 기성곡들에 대한 듣고 흉내내는 훈련을 통해서 감각을 발전시킨다면 쉽게 창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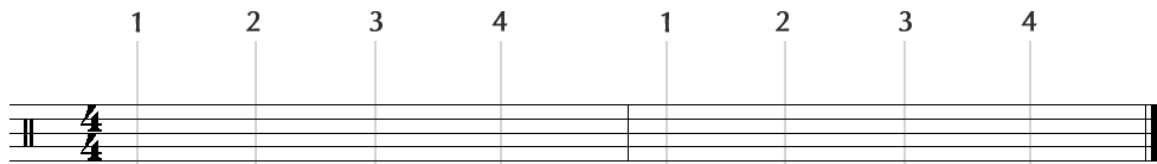
# 제9장: 드럼 - 8비트, 16비트

대중음악 속에서는 일정한 단위로 리듬 패턴이 반복되는데 보통 1마디 단위, 2마디 단위, 4마디 단위, 8마디 단위 등이 나타나며, 이 가운데서 2마디 단위가 가장 흔하게 사용된다. 이 장에서는 8비트와 쉬운 16비트를 몇가지 연습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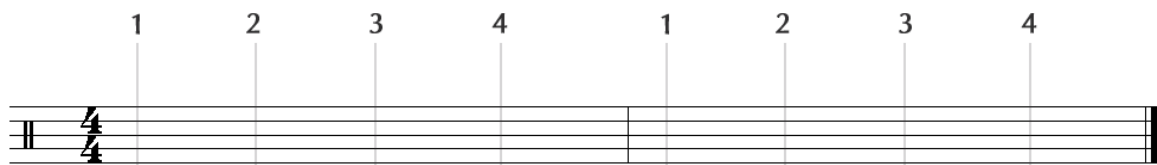
## 1. 8비트 악보연습

다음의 예제 패턴들을 듣고 악보에 표기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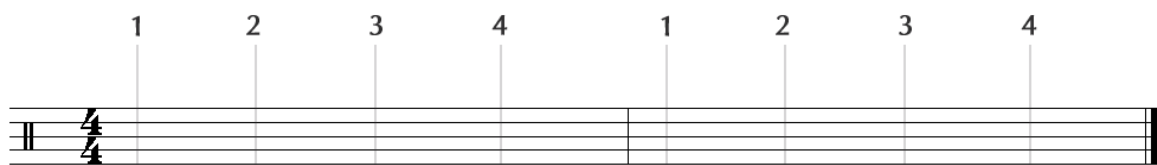
♪ RB-175.mp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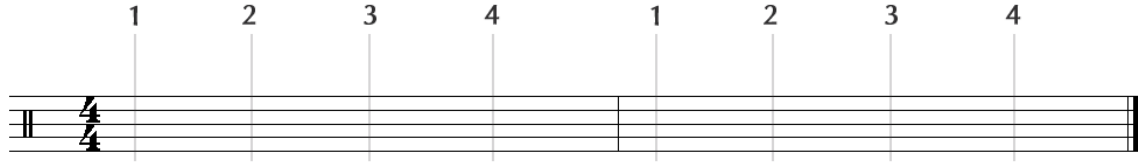
♪ RB-176.mp3



♪ RB-177.mp3



♫ RB-178.mp3



## 2. 8비트 패턴연습

다음의 예제 패턴들을 듣고 시퀀서의 피아노롤에 입력하라.

♫ RB-179.mp3

3:01:060	Bass Drum 1 (36)	1
Low-Mid Tom		
Open Hi-Hat		
Low Tom		
Pedal Hi-Hat		
High Floor Tom		
Close Hi-Hat	♦	♦
Low Floor Tom		
Electric Snare		
Hand Clap		
Acoustic Snare		♦
Side Stick		
Bass Drum 1	♦	
Acoustic Bass Drum		
34		

♫ RB-180.mp3

1:01:030	Low Floor Tom (41)	1
Low-Mid Tom		
Open Hi-Hat		
Low Tom		
Pedal Hi-Hat		
High Floor Tom		
Close Hi-Hat	♦	♦
Low Floor Tom		
Electric Snare		
Hand Clap		
Acoustic Snare		♦
Side Stick		
Bass Drum 1	♦	
Acoustic Bass Drum		♦
34		

♫ RB-181.mp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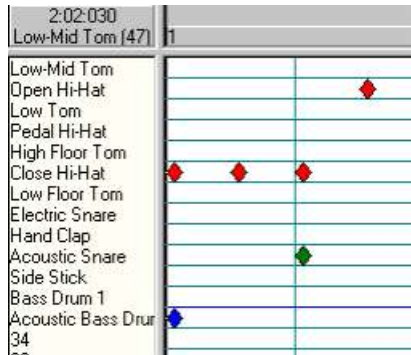
2:02:060	Open Hi-Hat (46)	1
Low-Mid Tom		
Open Hi-Hat		
Low Tom		
Pedal Hi-Hat		
High Floor Tom		
Close Hi-Hat	♦	♦
Low Floor Tom		
Electric Snare		
Hand Clap		
Acoustic Snare		♦
Side Stick		
Bass Drum 1	♦	
Acoustic Bass Drum		
34		

♫ RB-182.mp3

2:02:060	Open Hi-Hat (46)	1
Low-Mid Tom		
Open Hi-Hat		
Low Tom		
Pedal Hi-Hat		
High Floor Tom		
Close Hi-Hat	♦	♦
Low Floor Tom		
Electric Snare		
Hand Clap		
Acoustic Snare		♦
Side Stick		
Bass Drum 1	♦	
Acoustic Bass Drum		♦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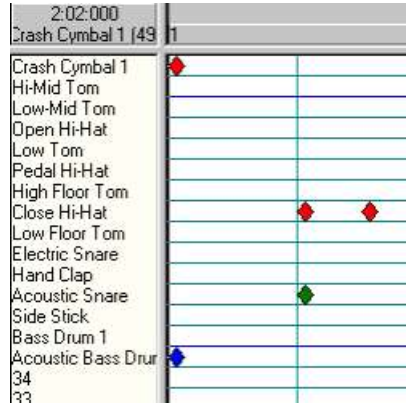
<경쾌한 로커빌리 스타일>

RB-183.mp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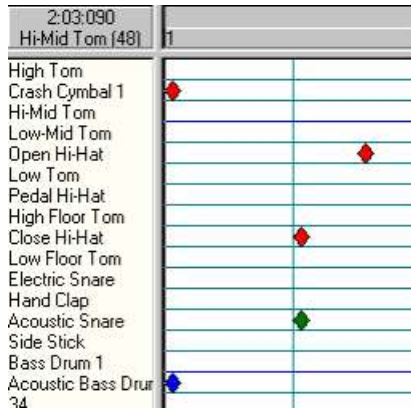
<오픈 하이햇에 의해 활기찬 느낌>

RB-184.mp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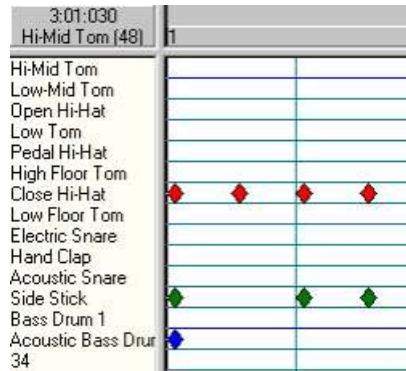


<크라쉬 심벌에 의한 필인>

RB-185.mp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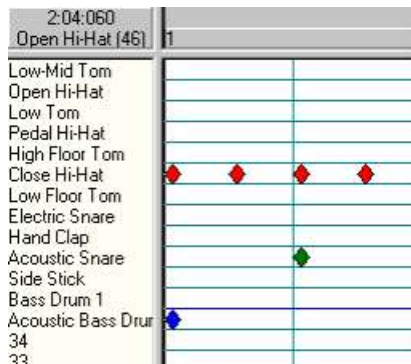


RB-186.mp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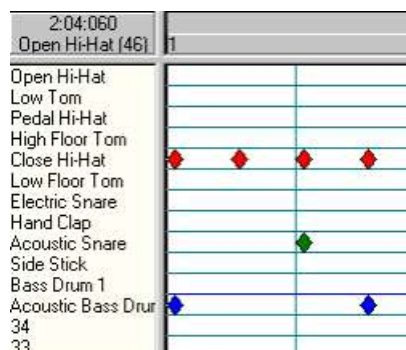
<보사노바 스타일>

RB-187(Jamiroquai-03).mp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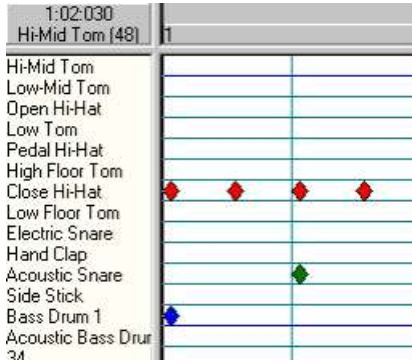
<애시드 스타일. 초반 2마디만>

RB-188(Tony Braxton-C ome on over here).mp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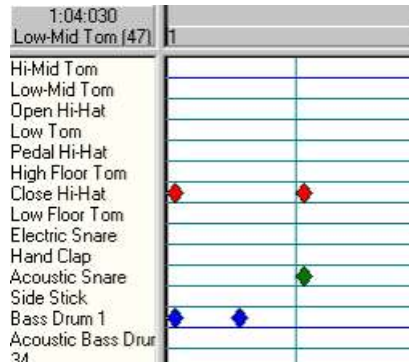


<R&B. 인트로 제외한 기본만>

🎵 RB-189(Bone Thugs'N'Harmony-Ghetto Cowboy).mp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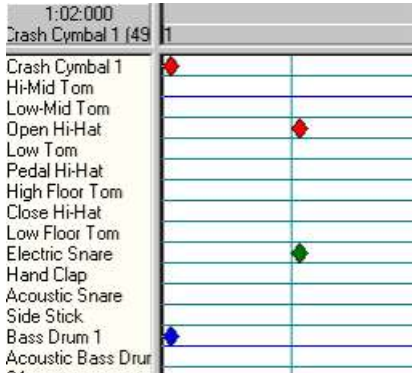


🎵 RB-190(Judas Priest-Screaming For Vengeance).mp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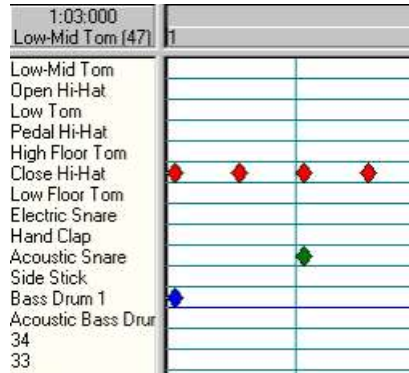
<초기 하드락. 매우 빠른 템포로 인하여 16비트처럼 느껴진다>

🎵 RB-191(Van Halen-Pretty Woman).mp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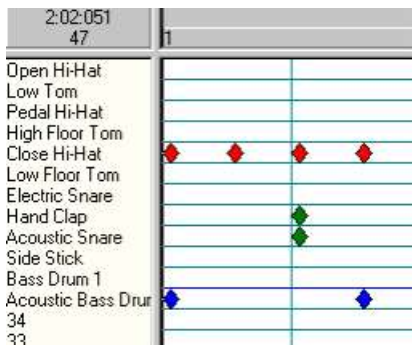
<하드락. 첫 2마디만>

🎵 RB-192(Eminem-The Kids).mp3



<락앤랩>

🎵 RB-193(N Sync-I Want You Back).mp3



<비트팝>

### 3. 16비트 패턴연습-하이햇 심벌

RB-194.mp3

2:01:090 Low Tom (45)	1
Open Hi-Hat	
Low Tom	
Pedal Hi-Hat	
High Floor Tom	
Close Hi-Hat	● ● ● ●
Low Floor Tom	
Electric Snare	
Hand Clap	
Acoustic Snare	

RB-195.mp3

3:01:048 112	1
Open Hi-Hat	
Low Tom	
Pedal Hi-Hat	
High Floor Tom	
Close Hi-Hat	● ● ● ● ●
Low Floor Tom	
Electric Snare	
Hand Clap	
Acoustic Snare	

RB-196.mp3

3:01:060 Hi-Mid Tom (48)	1
Hi-Mid Tom	
Low-Mid Tom	
Open Hi-Hat	● ●
Low Tom	
Pedal Hi-Hat	
High Floor Tom	
Close Hi-Hat	● ● ●
Low Floor Tom	
Electric Snare	

RB-197.mp3

1:04:000 High Tom (50)	1
High Tom	
Crash Cymbal 1	
Hi-Mid Tom	
Low-Mid Tom	
Open Hi-Hat	● ●
Low Tom	
Pedal Hi-Hat	
High Floor Tom	
Close Hi-Hat	● ● ● ●
Low Floor Tom	
Electric Snare	
Hand Clap	
Acoustic Snare	●
Side Stick	
Bass Drum 1	●
Acoustic Bass Drum	

<디스코 스타일>

RB-198.mp3

2:01:090 High Tom (50)	1
High Tom	
Crash Cymbal 1	
Hi-Mid Tom	
Low-Mid Tom	
Open Hi-Hat	● ●
Low Tom	
Pedal Hi-Hat	
High Floor Tom	
Close Hi-Hat	● ● ● ●
Low Floor Tom	
Electric Snare	
Hand Clap	
Acoustic Snare	●
Side Stick	
Bass Drum 1	●
Acoustic Bass Dr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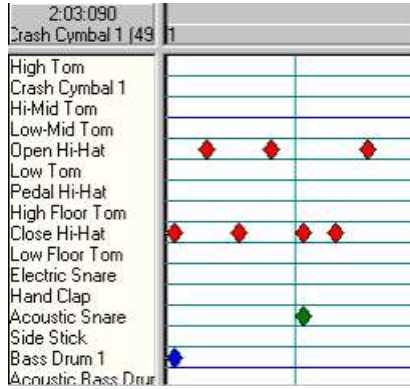
<디스코 스타일>

RB-199.mp3

2:04:090 High Tom (50)	1
High Tom	
Crash Cymbal 1	
Hi-Mid Tom	
Low-Mid Tom	
Open Hi-Hat	● ●
Low Tom	
Pedal Hi-Hat	
High Floor Tom	
Close Hi-Hat	● ● ● ●
Low Floor Tom	
Electric Snare	
Hand Clap	
Acoustic Snare	●
Side Stick	
Bass Drum 1	●
Acoustic Bass Dr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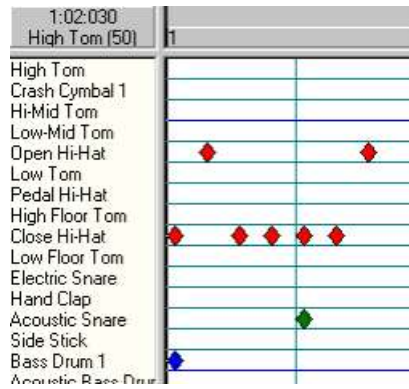
<디스코 스타일>

♪ RB-200.mp3



<디스코 스타일. 하이햇의 규칙적인 변화>

♪ RB-201.mp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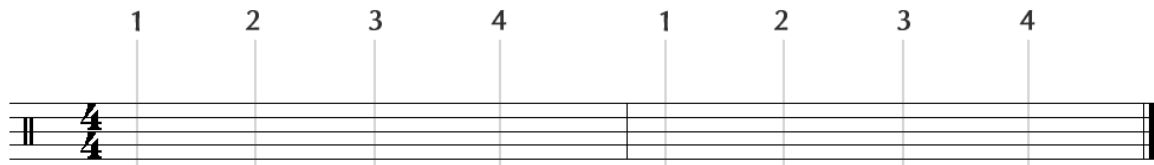


<디스코 스타일. 하이햇의 화려한 변화>

## 4. 16비트 패턴연습-베이스 드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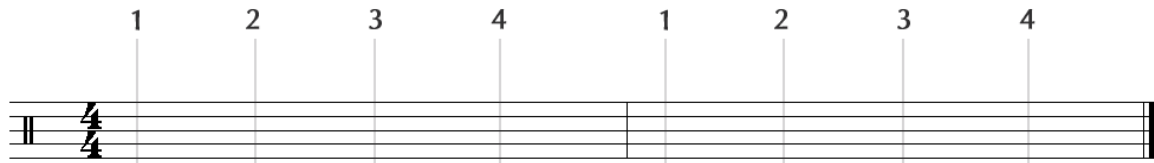
♪ RB-202.mp3

(악보에 기입)



♪ RB-203.mp3

(악보에 기입)



----- [본문 종락] -----

## [리듬과 베이스 (개정판)]

발행일            2017년 10월 1일  
지은이            박운영 (Janinto)  
제작,기획        함예진  
디자인            함예진  
표지사진         www.pexels.com (free photos)  
발행처            예진미디어

출판등록        제 307-2017-56 호 (2017년 08월 7일)  
주 소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7길 16, 301호  
대표전화        02-747-6784  
홈페이지       www.midist.pe.kr  
이메일           ilbobae@naver.com  
인쇄             남양인쇄소  
제책             성광제책사

값 20,000 원

본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 박운영 2017

ISBN 979-11-961675-3-0 93670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CIP2017023897)